

##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에 관한 종단 연구 : 잠재성장모형 적용\*

이 숙 정\*\*

### 초 록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초기 청소년시기에 인터넷 일탈행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에 부정적 자아개념의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결과로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4에서 초6까지 3년간 종단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초기 청소년시기에 인터넷 일탈행위는 증가의 추세를 보였고, 흥미롭게도 긍정적 자아개념은 변화하지 않는 반면에 부정적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개념과 인터넷 일탈행위의 관계에 대한 원인모형과 결과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터넷 일탈행위의 증가가 부정적 자아개념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인터넷 일탈행위, 부정적 자아개념, 잠재성장모형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조교수

## I. 서 론

인터넷이 없다면?

“미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서.. 짜증날 것 같아요.. 게임을 못하니까..” (신00, 남, 중1);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메신저에서 만날 수도 없고 답답할 것 같고 (인터넷이 없으면) 연락할 수 있는 게 전화밖에 없으니까..” (조00, 남, 중3) “나한테 꼭 있어야 하는 매체예요. 인터넷은 저한테 좋은 매체예요, 편리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애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유행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전00, 여, 중1)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없는 그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인터넷이 없다면, 한마디로 “답답한” 세상이 된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공간, 학업이라는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처, 학교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바깥세상을 넘나들 수 있는 통로인 것이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삶의 일부이며,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 행위, 즉 “일탈행위”로 규정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일탈행위는 정보화의 역기능 중 하나로서, 타인에게 물리적·심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인터넷 일탈행위가 사회적 문제라는 데 잠정적으로 동의하는 연구들은 일탈행위의 유형과 유발 요인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이들 연구들은 익명성, 상호작용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환경적 특성, 사회통제 기제의 약화, 자아존중감, 도덕심, 두려움 등 이용자 개인의 심리적 성향, 부모 또는 친구간의 유대관계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일탈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김미량 외, 2007; 이성식, 2004; 이현우, 2009; 조동기, 2006). 그러나, 실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일탈행위가 행위자인 청소년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Turkle, 1995). 청소년들의 블로그 이용에 관한 질적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확대시켜나가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Boyd, 2007; Davis, 2010; Ito et al., 2009).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은 아바타, 프로파일, 사진, 음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재매개하며, 표현된 자신을 스스로 관찰하는 동시에 타인의 반응과 평가를 즉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인터넷의 재매개성과 자기관찰적 공간으로서의 가시성은 개인의 의사소통 효능감을 강화시켜줄 뿐 아니라(이원태 외, 2008),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이 위험요소에 노출될 기회를 증가시키고 일탈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장현미, 김반야, 2008),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김진영, 2009). 하이퍼링크를 통한 끝없는 연결은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공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위험적 요소에 노출될 기회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은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이용자의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반사회적 행위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유의미성과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 일탈행위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탈육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탈행위만큼 청소년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행위는 현실세계를 반영하며 인터넷 공간이 현실의 연장이라고 본다면(Lee, 2009; 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인터넷 일탈행위 또한 완전히 새로운 행위라기보다는 기존 비행을 모방하면서 재생산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Selwyn, 2008). 이성식(2004)과 Selwyn(2008)의 연구 등은 현실에서의 일탈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실 일탈행위와 인터넷 일탈행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실에서의 일탈이라는 맥락 속에서 인터넷 일탈행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일탈행위가 현실 일탈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현실의 일탈행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인터넷 일탈행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청소년시기의 자아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제인 만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과 인터넷 일탈행위가 자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학 연

구에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일탈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그 논의를 인터넷 일탈행위에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기존 논의가 주로 횡단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쳤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종단적 관계 분석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발달적 변화양상, 인터넷 일탈행위의 변화, 자아개념과 인터넷 일탈행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자아개념

#### 1) 자아개념의 발달적 변화양상

자아개념은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생각과 감정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판단,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Gecas, 1982). Rogenberg(1979)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자기 귀속(self-attribution), 심리적 중심성(psychological centrality)에 의해서 발달된다. 반영된 평가는 본인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비교는 준거집단에 있는 타자와 자신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귀속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을 특징지우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중심성은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약점이 될 만한 본인의 속성을 주변화시키고, 강점이 될 만한 속성을 중심화시키는 경향을 의미한다. Rogenberg가 주장하듯이, 청소년들은 부모·선생님·친구들의 평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관찰, 또래 집단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켜나간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적 과제로서(Harter,

1983), 자아존중감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학문적 관심 중의 하나였다(Baldwin & Hoffmann, 2002; Block & Robins, 1993; Carlson, 1965; Dusek & Flaherty, 1981; Rogenberg, 1979; Savin-Williams & Demo, 1984). 예를 들어, Rogenberg(1979)는 청소년기 동안 자아존중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청소년 후기에 이르러서야 증가한다고 보고, 청소년 시기를 자아개념에 대한 혼란기로 명명한다. 한편, 질풍노도의 시기로 보는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Dusek과 Flaherty(1981)는 청소년 시기는 자아개념의 급변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5학년부터 12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아개념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아개념의 종단적 변화를 연구한 국내 연구들 또한 중2에서 고1 사이에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익중, 2007, 홍세희 외, 2006).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인 증가를 보인다는 주장은 Cole과 그의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연구자들은 3학년부터 1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개념을 6개월 단위로 측정하여, 측정시점 전후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변화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하였다. 그 결과, 전 시점에 걸쳐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6학년 2학기에서 7학년 1학기 사이에 상관계수가 다소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7학년 1학기 시점에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하락하게 되지만,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때, 각 시기 내에서 안정적인 증가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시기 동안 사회적 행위 관련 자아존중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안정적 증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중기와 후기 청소년기에 초점을 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중학생의 경우에, 중학교 진학과 함께 환경적 변화는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이후 그들은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중 2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연구, 정익중(2007) 연구와 홍세희 외(2006)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자아에 대한 개념

은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보일 것인가? Cole과 그의 동료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초기 청소년기에 나타난 사회적 행위 관련 자아존중감의 감소는 반사회적 행위의 증가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기 청소년기, 즉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은 자아개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더욱 정교화될 수 있다.

## 2) 자아개념의 다차원성

자아개념 관련 기존 논의의 한계점으로 자아개념이 단일 차원으로 측정되어왔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있다(예, 이은주·정익중, 2009, Owen, 1993; 1994, Rosenberg, 1995, Swann, et al., 2007, Verkuyten, 2003) 즉, 자아개념은 다차원적인 개념 구성체라는 것이다. 자아개념의 다차원성을 설명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첫째,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중감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이라는 부분과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구체적인 영역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학업 관련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신감, 감정적 자아개념, 신체적 매력 등 하부영역별로 자아존중감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셋째, 자아개념을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생각과 감정이다. 인간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독립된 차원의 개념이며, 이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에 근거할 때(Diener & Emmons, 1985; Larsen & Ketelaar, 1991; Watson, Clark, & Tellegen, 1988),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미리, 2005; Kohn & Schooler, 1983; Owen, 1993, 1994; Verkuyten, 2003).

인간의 정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아개념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왜 독립된 차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가능케한다. 특히 인간은 - 어린이이조차 - 서로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상반된 감정에 대한 독립된 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Harter & Buddin, 1989; Larsen, McGraw, & Cacioppo, 2001). 자아개념의 다차원성, 즉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은 방

법론적 측면에서 탐색적 또는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어 왔으며, 다른 변인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 다차원성에 대한 예측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Owen(1994)은 긍정적 자아개념(자신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자기 비하)에 대한 측정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변인을 만들어내는 관행으로 인해 변인들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정적 자아개념과 긍정적 자아개념, 그리고 둘을 결합한 자아개념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둘을 결합한 단일 측정보다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변인들이 학업성적, 우울증, 비행과의 관계에서 더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Swann과 그의 동료들(2007) 또한 자아개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그에 상응하는 변인과의 관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학업 관련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의 결과로서, 부정적 자아개념이나 일탈적 자아는 일탈행위의 결과로서 설정되었을 때, 변인의 예측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탈행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개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2.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

### 1) 현실에서의 일탈행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일탈행위와의 관계는 자기방어가설(self-defense hypothesis)과 자아증진가설(self-enhancing hypothesis)에 근거하여 설명되어 왔다. 즉, 준거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어린이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방어기제로서 준거집단으로부터 멀어짐과 함께 또래 비행집단과 교류를 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아증진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단-비록 비행집단일지라도-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Kaplan, 1978; Mason, 2001; Rogenberg, et al., 1989).

실증적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증명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그 관계의 방향성이나 관계의 유의미성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Rogenberg와 그의 동료(1989)들은 종단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비행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차후

일탈행위의 증가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r = -.19$ ), 일탈행위는 차후의 자아존중감 증가와 약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r = .08$ ). 그러나, Jang과 Thornberry(1998)의 중단연구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차후의 비행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비행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지도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자아존중감을 단일차원으로 측정되었다는 점과 자기보고식에 의한 측정오류의 가능성이 언급된다(Baumeister, et al., 2003; Verkuyten, 2003).

한편 자아존중감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이은주와 정익중(2009) 연구는 청소년 비행과 자아개념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자아개념이 아니라 일탈적 자아개념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자아증진 가설과는 달리, 비행경험은 일탈적 자아개념의 증가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 또한 현실세계에서의 일탈행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가상공간에 적용함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 2)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

인터넷 일탈행위는 인터넷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회적 관습, 규범,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인터넷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적 특징들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린다(Rogers et al., 2006; Selwyn, 2008).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와 체재 등 사회적 통제가 약한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보다는 본인의 충동적인 욕구나 본인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물리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익명성은 자아를 해방시키는 동시에 다중자아를 만들어내면서 자아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나은영, 2006).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현실과는 다른 자아 형성이 가능하고, 반사회적 반규범적 행위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상공간의 구조적 특성이 인터넷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인터넷 일탈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가상공간의 특성 외에 이용자의 특성 또한 인터넷 일탈행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일탈행위에 관심을 두는 연구들은 인터넷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성,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또래 집단의 특성, 청소년기의 발달심리적 특성, 인터넷 이용행위의 특성 등을 제안한다(이성식, 2004; 이현우, 2009; 장현미·김반야, 2008). 이성식(2004) 연구에서는 부모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성향,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활동상에 이용자의 익명 또는 실명 여부는 일탈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인터넷상의 일탈행위는 일상에서의 일탈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모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이현우(2009) 연구에서는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과 사회적 유대라는 변인은 인터넷 일탈행위를 설명하고 있었으나, 심리적 성향(자아존중감, 도덕성)은 인터넷 일탈행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예상과는 달리 자아존중감이나 도덕성 같은 청소년의 심리적 성향이 인터넷 일탈행위와 무관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현우는 심리적 성향이 현실공간과 인터넷 공간에서 달리 구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며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 심리적 성향은 자아존중감, 도덕성이라는 두 하부개념을 근거로 한 잠재변인이었으며, 이러한 심리적 성향은 인터넷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이라는 변인만을 보자면, 4개의 긍정적 자아 관련 항목과 1개의 부정적 자아 관련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긍정적 자아 개념과 부정적 자아 개념이라는 상이한 두 차원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현실에서의 일탈행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가 상호적 인과관계에 놓여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인터넷 일탈행위의 원인으로뿐만 아니라 결과로 간주하고 원인 모형과 결과 모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에 인터넷 일탈행위는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자아개념, 특히 부정적 자아개념이 인터넷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부정적 자아개념은 인터넷 일탈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가?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4 패널 1, 2,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4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매년 자료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총 2,844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그 중 남학생은 1,524명, 여학생은 1,320명이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주요변인들의 변화의 양상과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주요변인

본 연구에 사용될 주요변인으로 인터넷 일탈행위,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이 포함된다. 성별(남자=0; 여자=1)은 통제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일탈행위는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측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고의로 거짓내용을 퍼뜨리기,’ ‘인터넷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인터넷ID/주민등록번호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나이 속이기,’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 등 5개 항목이 포함된다. 해당 행위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1로 코딩되고, 없으면 0으로 코딩되어, 전체 인터넷 일탈행위에 대한 점수는 0점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된다.

자아개념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대한 3개의 항목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에 대한 3개 항목을 구분하여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을 포함한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나

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1,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6으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 일탈행위,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변인 측정 시점의 변화와 함께 인터넷 일탈행위와 자아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 변화에 개인차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면, 자아개념의 변화와 인터넷 일탈행위의 변화간의 상호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개인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은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chi^2$ ,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RMSEA는 .05 이하일 때, TLI, CFI의 값은 .90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RMSEA가 .05와 .08사이에 있을 때는 다소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hi^2$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검증모형이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형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나,  $\chi^2$ 값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 수가 증가하면 그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Klei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i^2$ 와 함께, RMSEA, TLI, CFI의 값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기술 통계치에 의하면, 초4에서 초6 사이에 인터넷 일탈행위는 남녀 모두 증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한편, 남자가 더 빠른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아개념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         | 남자   |      | 여자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인터넷일탈 1 | .37  | .71  | .24  | .58  |
| 인터넷일탈 2 | .57  | .91  | .35  | .71  |
| 인터넷일탈 3 | .62  | .99  | .38  | .79  |
| 긍정적자아 1 | 3.19 | .86  | 3.15 | .75  |
| 긍정적자아 2 | 3.18 | .84  | 3.18 | .77  |
| 긍정적자아 3 | 3.18 | .80  | 3.15 | .80  |
| 부정적자아 1 | 2.22 | .92  | 2.17 | .86  |
| 부정적자아 2 | 2.27 | .94  | 2.20 | .88  |
| 부정적자아 3 | 2.35 | .93  | 2.31 | .88  |

### 2. 변인별 잠재성장모형

인터넷 일탈행위,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비성장 모형과 선형모형간의 모형 적합도를 바탕으로 변화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일탈행위의 경우 선형모형에 대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모형 적합도 지수 중  $\chi^2$  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표본 크

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CFI와 RMSEA 값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선형 모형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인터넷 일탈행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긍정적 자아개념의 경우에는, 비성장 모형의 적합도가 충분히 높았을 뿐 아니라, 변화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성장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즉,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동안 자아개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 자아개념의 무변화와는 달리, 부정적 자아개념의 선형 모형은 그 적합도가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학년의 증가와 함께 부정적 자아평가가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변인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       | $\chi^2(df)$ | $p$ 값 | TLI   | CFI   | RMSEA |
|-------|--------------|-------|-------|-------|-------|
| 인터넷일탈 |              |       |       |       |       |
| 비성장모형 | 228.38(4)    | .000  | .455  | .637  | .14   |
| 선형모형  | 15.35(1)     | .000  | .861  | .977  | .07   |
| 긍정적자아 |              |       |       |       |       |
| 비성장모형 | 9.37(4)      | .053  | .990  | .993  | .022  |
| 선형모형  | .08(1)       | .781  | 1.000 | 1.000 | .000  |
| 부정적자아 |              |       |       |       |       |
| 비성장모형 | 80.27(4)     | .000  | .847  | .898  | .082  |
| 선형모형  | 2.10(1)      | .150  | .991  | .999  | .020  |

유의미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발달체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변화율의 평균이 양의 값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증가의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일탈행위의 초기치의 평균은 .32, 변량은 .2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4 청소년들의 인터넷 일탈행위에 개인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일탈행위의 변화율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인터넷 일탈행위는 학년의 증가와 함께 증가의 추세를 보이며, 그 변화율에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자아개념의 초기치의 평균은 2.19, 변량은 .40, 변화율의 평균은 .07, 변량은 .0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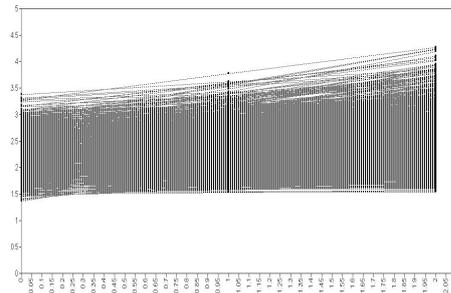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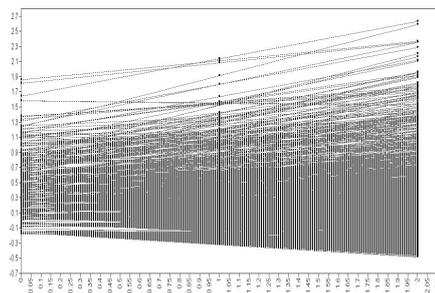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자아개념이 증가추세를 보이며, 그 변화에 대해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긍정적 자아개념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변인의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                | 평균           | 변량          |
|----------------|--------------|-------------|
| 인터넷일탈행위        |              |             |
| 초기치(Intercept) | .32(.01)***  | .21(.02)*** |
| 변화율(Slope)     | .11(.01)***  | .09(.01)*** |
| 긍정적 자아개념       |              |             |
| 초기치(Intercept) | 3.18(.01)*** | .24(.02)*** |
| 변화율(Slope)     | -.00(.01)    | .03(.01)*** |
| 부정적 자아개념       |              |             |
| 초기치(Intercept) | 2.19(.02)*** | .40(.03)*** |
| 변화율(Slope)     | .07(.01)***  | .09(.02)*** |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 \*\*\*  $p < .001$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 변화의 개인차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에서 추정된 값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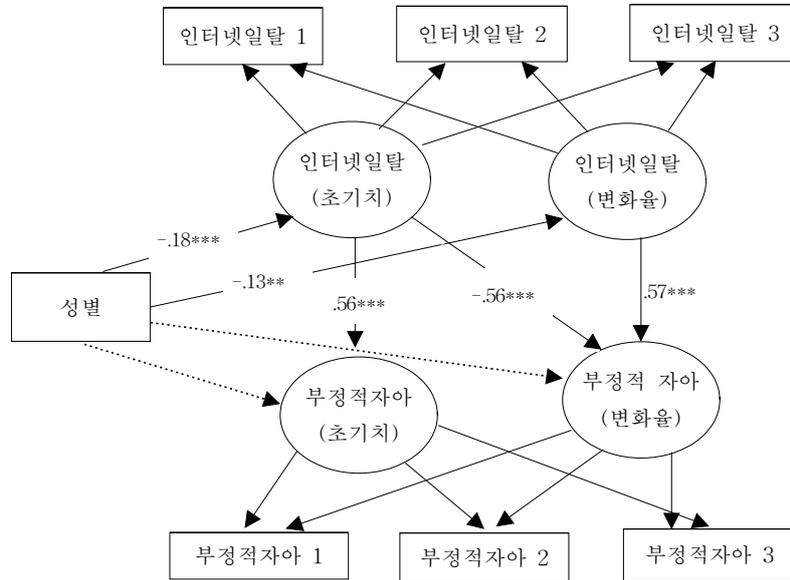
[그림 1] 인터넷 일탈행위 변화에 대한 개인차 [그림 2] 부정적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개인차

### 3. 인터넷 일탈행위 변화와 부정적 자아개념 변화의 관계

위에서 언급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일탈행위 변화율의 개인차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 자아개념 변화의 개인차를 인터넷 일탈행위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인터넷 일탈행위 변화와 부정적 자아개념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부정적 자아개념의 변화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원인 모델과 이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결과 모델을 검증하였다. 원인모델의 적합도 ( $\chi^2(df) = 114.25(12), p = .000, TLI = .857, CFI = .939, RMSEA = .06$ )와 결과 모델의 적합도 ( $\chi^2(df) = 75.60(12), p = .000, TLI = .911, CFI = .962, RMSEA = .043$ )를 비교분석할 때, 결과 모델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결과 모델의 카이제곱값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TLI를 비롯한 모든 적합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따라서 인터넷 일탈행위의 변화가 부정적 자아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결과모델을 최종모델로 설정하였다. 최종모델에서의 변인들간의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인터넷 일탈행위의 초기치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초기치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가 시작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인터넷 일탈행위를 많이 할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일탈행위의 변화율과 부정적 자아개념의 변화율간에도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동안 인터넷 일탈행위의 증가율이 빠를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의 증가율도 빠름을 의미한다.

통제변인으로 설정되었던 성별은 인터넷 일탈행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남자가 여자보다 인터넷 일탈행위를 더 많이 하며, 그 증가율 또한 빠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별은 부정적 자아개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일탈행위 초기치와 부정적 자아개념 변화율간의 부적 관계는 초기에 인터넷 일탈행위가 많이 할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부정적 자아개념이 5점 척도에 의해서 측정되어 그 상한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에 대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분석결과: 인터넷 일탈행위 변화와 부정적 자아개념 변화의 관계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행위가 활발해지는 초기 청소년기에, 인터넷 일탈행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인터넷 일탈행위 변화의 원인으로서는 또한 결과로서 부정적 자아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인터넷 일탈행위는 증가의 추세를 보였다. 인터넷 이용 정도가 일탈행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상식, 2004), 특히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회적 이용의 증가가 일탈행위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장현미·김반야, 2008)에서 보고되었듯이, 초기 청소년시기 인터넷 이용의 증가는 인터넷 일탈행위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의 증가 또는 사회적 이용의 증가 외에 인터넷 일탈행위의 증가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개념을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긍정적 자아개념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부정적 자아개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타인의 평가, 준거집단과의 사회적 비교, 타인과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자기 인식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Gecas, 1982; Rogenberg, 1979). 아동기와는 달리 사회적 관계가 또래 집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이라는 새로운 준거 집단이 형성되며, 본인 및 타인에 대한 지각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이다(Santrock, 1986). 유아기와 아동기의 자아개념이 부모의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면,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또래집단과의 비교,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반응 등에 대한 지각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을 비교할 새로운 준거들이 많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 자아개념이 증가한 반면, 긍정적 자아개념은 변하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개념에 대한 차원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부정적 자아개념, 자기 부정, 자기 비하 등의 개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의 자아존중감과 방향성을 달리하는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아개념에 대한 다른 차원의 개념임을 보여준다.

일탈행위와 자아개념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자아개념의 변화가 인터넷 일탈행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인터넷 일탈행위 변화의 결과로서 부정적 자아개념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 적합도를 근거로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초기치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인터넷 일탈행위의 증가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증가 또한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인터넷 일탈행위가 일상적 일탈행위의 일부라고 할 때,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던 일탈행위와 자아개념간의 상호 관계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며, 특히 일탈행위의 결과로서 부정적 자아개념을 보는 모델이 더 설명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던 인터넷 일탈행위가 행위자의 자아개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시기에 재미로 호기심삼아 하는 일탈행위는 비록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자아개념의 변화는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으나, 최근 연구에서 밝혀듯이, 남자 중학생의 경우 부모나 또래 관계가 개인의 자아개념 변화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되었다(홍세희 외, 2006). 이러한 결과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사회적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방식과 사회적 행위가 그들의 자아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인터넷 일탈행위의 증가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증가간의 정적 관계를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많았으나,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고, 특히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의 하나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주목을 하고, 인터넷에서의 사회적 행위 특히 일탈행위가 그들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청소년학 관련 연구에서 부모나 또래 집단에 초점을 둔 것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일탈행위의 증가가 부정적 자아개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행위와 자아개념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본 연구는 자아개념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모형과 결과로 간주하는 모형간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자아개념이 인터넷 일탈행위의 결과로서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모형이 더 설명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일탈행위가 타인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넘어서 초기 청소년 행위자의 자아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근거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아개념이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 준거집단과의 비교, 자기 행동과 결과에 대한 관찰 및 평가 등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일탈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스스로의 인식 및 평가, 인터넷에서 접촉하는 타인들의 반응, 일탈행위와 수반되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자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은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간의 정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미량·엄명용·김태웅(2007). 사이버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제7권 제5호, pp. 27-35.
- 김진영(2009). 청소년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용양태 및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 pp. 113-139.
- 나은영(200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권 제1호. pp. 93-127.
- 이성식(2004).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설명요인에 관한 일 연구: 기존 현실일탈에서의 주요 요인의 적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pp. 121-154.
-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 263-293.
- 이원태·이준웅·양승찬·황용석·홍순식·권성미(2008). 방통융합시대 시민참여 변화와 정책적 함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은주·정익중(2009). 청소년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호적 인과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 pp. 191-221.
- 이현우(2009). 청소년의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6권 제2호, pp. 164-198.
- 조동기(2006). 사이버공간의 일탈 유형과 사회통제의 특성. 한국정보사회학회, 제10권, pp. 73-99.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127-166.
- 장현미·김반야(2008). 인터넷 이용 유형이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일탈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4호, pp. 199-225.
- 홍세희·박언하·홍혜영(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pp. 241-263.
- Baldwin, S. A., & Hoffmann, J. P.(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1 No. 2, pp. 101-113.
- Block, J., & Robins, R. W.(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Vol. 64, pp. 909-923.
- Boyd, D.(2007). Why youth heart social network sites: The role of networked publics in teenage social life. In D. Buckingham (Ed.), *Youth, identity, and digital media*(pp. 119-142).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ole, D. A., Maxwell, S. C.,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Hoffman, K. B., Ruiz, M. D., Jacquez, F. & Maschman, T.(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Vol. 72 No. 6, pp. 1723-1746.
- Davis, K.(2010). Coming of age online: The developmental underpinnings of girls' blog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25 No. 1, pp. 145-171.
- Diener E., & Emmons, R. A.(1985).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7 No. 5, pp. 1105-1117.
- Dusek, J. B., & Flaherty, J. F.(1981). The development of the self-concept during the adolescent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4, Serial No. 191).
- Gecas, V.(1982). The self-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8, pp. 1-33.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275-385). New York: Wiley.
- Ito, M., Baumer, S., Bitanti, M, Boyd, D. Cody, R., Herr-Stephenson, B., et al.(2009). *Hanging out, messing around, and geeking out: Kids living and learning with new media*. Cambridge, MA: The MIT Press.
- Jang, S. J., & Thornberry, T. P.(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Vol. 63, pp. 586-598.
- Kaplan, H. B.(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Vol. 7 No. 3, pp. 253-277.
- Harter, S., & Buddin, B. J.(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A five-stage developmental acquisition seq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3, pp. 388-399.
- Klein,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ohn, M. L., & Schooler, C.(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 Larsen, R. J., & Ketelaar, T.(1991).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pp. 132-140.
- Larsen, R. J., McGraw, A. P., & Cacioppo, J. T.(2001). Can people feel happy and sad at the same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1, pp. 684-696.
- Lee, S. J. (2009). Onlin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social ties: Who benefits more from Internet us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4, pp. 509-531.
- Mason, W. A.(1999).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again): A test of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1, pp. 83-102.
- Owen, T. J.(1993). Accentuate the positive-and the negative: Rethinking the use of self-esteem, self-deprecation, and self-confid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6 No. 4, pp. 288-299.
- Owen, T. J.(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No. 3, pp. 391-407.
- Rog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 54 No. 6, pp. 1004-1018.
- Rogers, M., Smoak, N., & Liu, J.(2006). Self-reported deviant computer behavior. *Deviant Behavior, Vol, 27 No. 3*, pp. 245-268.
- Rogenbu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ntrock, J. W.(1986). *Life-span development*. Brown Publishers, Dubuque, IA.
- Savin-Williams, R. C., & Demo, D. H.(1984). Developmental change and stability in adolescent self-concep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0 No. 6*, pp. 1100-1110.
- Selwyn, N.(2008). A safe haven for misbehaving? An investigation of online mis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Vol. 26 No. 4*, pp. 446-465.
- Swann Jr., W. B., Chang-Schneider, C., & McClarity, K. L.(2007). Do people's self-views matter? *American Psychologist, Vol. 62 No. 2*, pp. 84-9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pp. 1063-1070
- Wellman, B., Haase, A. Q., Witte, J.,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5 No. 3*, pp. 436-455.
- Verkuyten, M.(2003).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among ethnic minority early adolescents: Social and cultural sources and threa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2 No. 4*, pp. 267-277.

## ABSTRACT

###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Internet Deviant Behaviors and Negative Self-Concept Among Pre-Adolescents

Lee, Sook-Jung\*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Internet deviant behaviors and positive and negative self-concept over time among pre-adolesce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negative self-concept is a cause or an outcome of Internet deviant behaviors. Data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and the fourth grade cohorts of elementary school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s Internet deviant behaviors increased, the positive self-concept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and negative self-concepts increased over time. In addition, increases in Internet deviant behavior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increases in negative self-concept.

**Key Words** : internet deviant behaviors, self-concept, latent growth model

투고일 : 4월 9일, 심사일 : 7월 21일, 심사완료일 : 8월 11일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